

정치 분야 전문가들은

이번 조사에 참여한 정치 분야 전문가들은 총 364명이다. 이 가운데 학자가 248명이고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116명이다. 우선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,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, 전체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만 44세로 20대에서 70대까지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. 남녀 비율은 남성이 88%, 여성이 11%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응답자의 68%, 영남지방이 12%, 인천경기가 11%, 호남과 충청지역이 각각 5%와 4%를 구성하고 있다. 응답자 모두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월간 소득이 400만원 내외였다.

다음으로 정치적 특성에서 먼저 이념성향을 살펴보면, 응답자의 38%가 진보, 12%가 중도, 40%가 보수라고 응답하여 진보-보수간 비교적 양적 차원의 균형은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. 지난 대선에서는 노무현 후보(43%), 이회창 후보(36%)였고, 권영길 후보를 8%의 응답자가 지지하였다.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응답자의 39%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고 열린우리당 후보에 대해서는 34%가 지지했다. 대선 이후 정치적 선호에 일정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. 현재의 지지 정당으로는 29%가 한나라당, 열린우리당 23%, 민주노동당 10%로 나타났다.

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전문가 집단과 일반국민들 사이에 이슈에 대한 정보 취득 경로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. 전문가들은 '주요 뉴스 취득매체'로 신문 55%, 인터넷 37%,였고 TV는 5%에 불과했다. 그리고 매일 신문을 읽거나 매일 인터넷을 활용하는 응답자가 각각 85%와 84%에 달했다. 반면, 일반국민의 경우 주요 뉴스 취득매체로서 TV(70%), 신문(19%)에 이어 인터넷(9%) 순으로 응답하여 전문가 집단과 뚜렷한 대조를 나타냈다. 또한 이용 빈도에 있어서도 신문과 인터넷을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각각 35%와 28%에 머무르는 등 정보 취득경로나 빈도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하였다.

동아시아연구원은 이상의 대외인식 전문가 여론조사를 포함하는 보다 상세한 내용의 보고서를 금명간 간행하고,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